

5월 멍에 짊어지고 산 윤한봉 '주홍글씨' 영화로 지우다

김경자 감독 다큐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광주독립영화관 상영 제작 기간만 7년... 도피 이후 펼쳤던 평화운동·저항의 삶 조명 김진숙 목사·한청련 장광민 등 교류했던 인물들 생생한 증언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한봉은 광주 5·18민중항쟁 당시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져 있다. 계엄군의 검속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뒤 미국에서 광주 참상을 알리는 한청련을 조직했으며 1994년 5·18기념재단을 설립하기 이른다.

등 뒤로 두 손이 묶인 채 계엄군에게 연행됐던 모습을 연상시키듯 그의 호는 '합수(合水)'다. 모교 전남대는 추모 의미에서 작년 제막식을 열고 농업생명과학대 일원에 '윤한봉 정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선봉에 섰던 합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있다. 바로 1980년 5월 17일 계엄군에게서 도피한 뒤 '마지막 수배자'이자 '도망자'로 각인된 것.

김경자 감독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는 그런 윤한봉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지난 14일 저녁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상영회를 겸해 관객과의 만남(GV) 행사가 열렸다.



김경자 감독

연출자 입장에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던 윤한봉을 다뤘다는 점은 나름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윤한봉의 광주 행적을 부각시키기보다, 도피 이후 세계 전역에서 펼쳤던 평화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싶었다"며 "전작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서 5월 여성에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로 알고 있지만 저항의 삶을 살았던 그의 행적을 짚어주려 한다"고 했다.

그런 부담감이 사료 수집, 인터뷰 과정과 맞물려서인지 영화 제작 기간만 총 7년에 달한다.

영화 초입은 윤한봉이 미국 도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은 장면으로 시작한다.

"같이 죽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의 말은 영화 말미에서도 반복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 감독은 "짧은 멘트지만 윤한봉의 생각이 응축돼 있는 대사"라며 "그의 고뇌와 속죄하는 마음, 울분 등을 담백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영화 초입과 말미에 삽입된 윤한봉의 귀국 장면. <김경자 제공>

라 여러 번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생전 윤한봉과 교류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도 담았다. 1981년 당시 시애틀에서 밀입국을 도왔던 김진숙 목사는 처음 윤한봉과 만날 때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라는 암호를 했던 기억을 풀어냈다. 이 일화가 영화 제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청련에서 일했던 상근활동가 장광민을 비롯해 김남원, 민족학교 초기부터 활동한 홍기완·홍광자 등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도 흥미롭다. 당시 북한 관련 조직으로 오해를 받아 FBI에서 집에 방문했던

일, 민족평화대행진을 준비하며 풍물패를 꾸리고 가두행진을 했던 일은 민중이 희원했던 평화 가치를 반추한다.

김 감독은 윤한봉의 도피와 광주 행적보다 그가 기획·실행했던 1989년 '국제평화대행진' 과정에 주목한다.

당시 윤한봉과 소통하던 황석영 작가 또한 "학생 운동가였던 그(윤한봉)가 오히려 작가보다 상상력이 더한 것 같아 반성했다"며 "몽상에서 출발한 국제평화대행진이 현실화시킨 많은 사람들의 끝없는

노력 덕분이었다"며 회고했다.

나아가 영화는 윤한봉의 활동이 오늘날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도 조명한다. 그로부터 시작됐던 한인 커뮤니티들은 오늘날 뉴욕 민권센터로 성장해 1년 예산이 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필름에 담긴 민족학교 킨슬리나 오렌지카운티 등은 아직까지 미국 전역에서 5·18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날 한 관객은 "광주에 살아가는 건 늘 힘들고 부채 의식이 있지만, 그게 우리를 모두의 삶이었다"며 "영화 속 합수는 죽음이 자신의 소명인듯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인지 1980년 광주의 비극적 일화와 타향에서 평화를 모색했던 전 과정이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도망자로서 알려진, 또는 도망자인지조차 모르는 윤한봉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냈고 떠났다는 걸 알리는 작품이기에 감회가 남달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에서 밀항 장면 등을 묘사하는 삽화는 전현숙 작가가 그렸으며, 프로듀싱은 진모영 영화 감독이 맡았다. OST로 삽입된 '해방가'나 '그날이 오면', '예성강'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영화는 윤한봉이 1993년 5월 망월동 묘역에서 전영진 열사에게 헌화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이성복의 시 '그날' 중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내레이션이 마지막을 들려주면서 울림을 남긴다.

윤한봉은 고문 피해와 밀항하며 약화된 폐기중으로 2007년 생을 마감, 5·18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문화예술교실'

새해 주요 공연사업 신설·강화

새해를 맞아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주요 공연사업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시립예술단이 다중 밀집 지역을 찾아 문화향유 기회를 선사하는 기획이다. 첨단 생암공원,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 등 무대를 발굴해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전당과 교육청이 시범 추진했던 '예술감상 교육사업'도 본격화한다. 전당은 지난해 각급 학교 선호도 조사를 통해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을 시범사업 공연으로 상연, 관내 초·중·고교 11개 학교 1434명에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을 정례화해 미래예술 관람객을 확보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기량이 뛰어난 시립예술단원과 예술 강사(초빙)로부터 시민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문화예술교실'은 기존 3개 분야(국악, 발레, 여성합창)에서 확대 운영한다. 초등 1~3학년 대상 동요교실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카테고리 운영하며 분기별로 수강생



지난해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실 작품발표회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을 모집한다. (주 1~2회 강좌 운영) 전당 내 단체연습실에서 진행하며 일반시민, 학생, 교사, 직장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유아발레 경우 6세 이상부터 등록 가능하며 각 강좌별 모집인원 및 수강료는 상이하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결과발표회를 통해 직접 무대에서 서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과 기존 사업을 보강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려 한다"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술감상교육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관객층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시아적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아시아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찾는다.

지난 2017년부터 ACC의 전문박물관인 아시아문화박물관은 그동안 전시, 교육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 관련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번 소장품 수증 대상은 아시아 문화 관련 문화재적 가치와 연구, 전시의 활용도가 높은 실물 자료다. 아시아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통의복, 음

식문화, 전통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설화, 도시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이 해당한다.

기준받은 자료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보존되며 기획전,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인도네시아 전통가면극 인형(와양)과 가면으로 구성된 무카무카무 수집품,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민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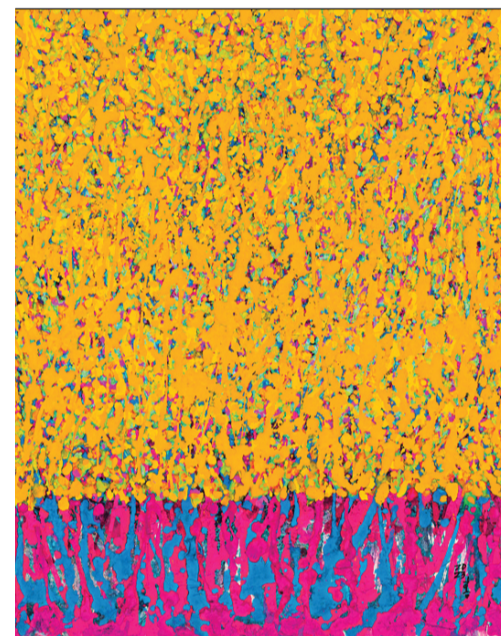
통카펫 등을 소장하고 있다.

기증 희망자는 신청서와 자료 사진 등 서류를 ACC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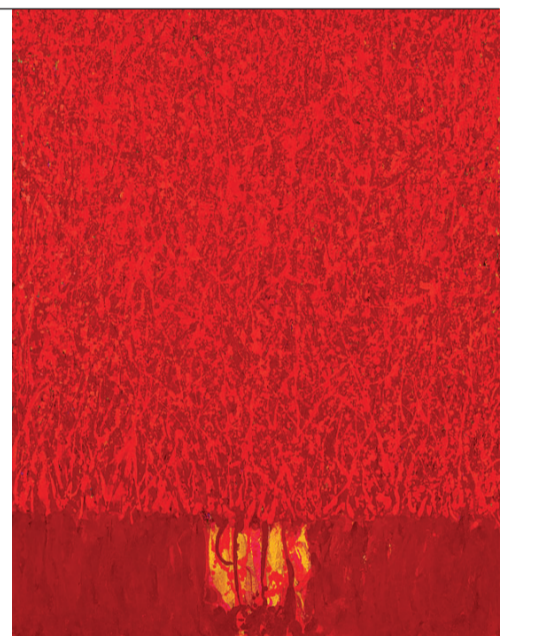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의 보고'라며 "이번 소장품 기준을 매개로 의복이나 음식, 공연,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 많이 기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향기 꿈꾸는 어느날'



'꽃 바람'

화려한 색감, 자유로운 붓질, 그윽한 향기

양홍길 '환희' 전, 2월 1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한겨울 추위를 뚫고 어디선가 그윽한 꽃향기가 밀려온다. 시국은 어지럽지만 꽃향기 불쑥 배어나오는 작품을 보고나면 위안이 된다. 꽃이 지닌 힘이다. 따뜻한 봄 모든 생물이 깨어나는 만화방창의 계절보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더욱 진하다.

양홍길 작가의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붓질에서 특유의 향기가 배어나온다. 회로에락에육정,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감정을 작가는 자신만의 색감과 형상으로 구현했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오는 2월 16일까지 열리는 양 작가의 개인전 '환희'(歡喜). 30여 점의 작품은 풍부한 감성과 개성적인 붓질, 화사한 색채가 조화를 이룬다.

회화에 투영했을 작가의 감성과 작품을 보며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관람객의 감성은 어떤 차

이가 있을까.

작품 '꽃향기 꿈꾸는 어느날'은 어느 봄날 막막하게 되는 노란 꽃밭의 향연을 형상화했다. 무리지어 피어나는 꽃은 수많은 익명의 사람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작품을 보고 나면 '사람의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양 작가는 끊임없이 방향성을 견지하고 색채를 탐색하며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추구해왔다. 작품이 내재하는 공간은 특정한 장소일 수도, 보는 이가 저마다 상징하는 이상향일 수도 있다.

한편 양 작가는 조선대 미대 한국화과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미술, 선목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